Today Chart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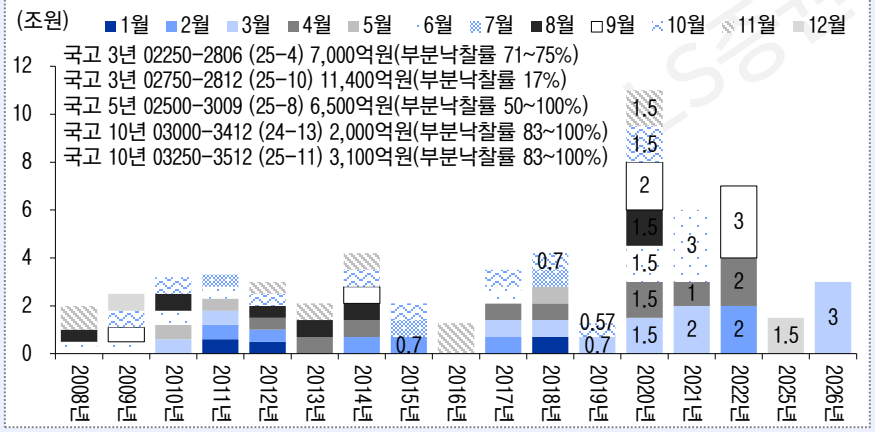
2026.3.10

채권 우혜영
whydele@ls년sec.co.kr

국제 유가 급등이 쏘아 올린 3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 매입

시기	단순 매입 실시 목적
2019년 3월, 10월	RP매각 대상 채권 확충
2020년 3월	시장안정화 및 RP매각 대상 채권 확충
2020년 4월, 6월	금융회사의 채권 매수 여력 확충을 통한 국고채 수급 개선
2020년 8월, 9월	국고채 수급 개선 및 RP 매각 대상 채권 확충
2020년 10월, 11월	국고채 수급 상황 개선 및 RP매각 대상 채권 확충
2021년 3월	채권시장의 국고채 매입 여력 제고 및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
2021년 4월, 6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방안(2월26일)에 따라
2022년 2월, 4월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2022년 9월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2025년 12월	RP매각 대상 채권 확충
2026년 3월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2008년 이후 단순 매입 실시 목적은 'RP 매각 대상 채권 확충'이 일반적. 팬데믹 이후에는 '국고채 수급 개선',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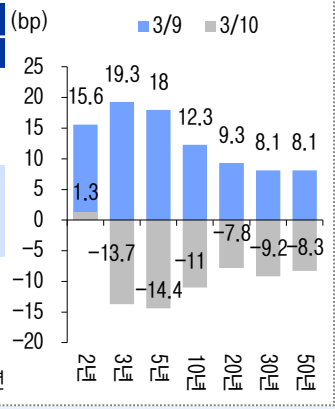


주: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LS증권 리서치센터

단기물 금리 되돌림이 상대적으로 제한(추경 발언에 따른 부담?)

연물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단기		중기		장기		
2024년 목표 (실제)	30±3% (28.5%)		35±3% (33.5%)		35±3% (38.1%)		
2025년 목표 (실제)	30±3% (31.5%)		30±3% (29.7%)		40±5% (38.8%)		
2026년 목표	35±5%		30±5%		35±5%		

2026년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발행 비중의 경우
단기물은 전년대비 확대, 장기물은 전년대비 축소, 중기물은은 유지
2025년 연간 발행 규모: 30년>3년>5년>10년 >2년>50년>20년



Key Point

- **3월 9일, 전 연물에 걸쳐 국고채 금리 급등하자 한국은행은 최근의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의 국고채 단순 매입 계획 발표**
  - 지난주 후반,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전망 강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한국 금융시장은 9일(월)에 반영. 주가 급락, 금리 급등, 달러원 환율 급등
- **국고 금리 발작 이유: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국제 유가 급등, 달러원 환율 상승은 수입 및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 확대 요인
  - 한국은행 물가 전망 경로가 상향 조정 됨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리스크와 당초 예상보다 물가상승률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 형성
- **국고채 매입은 3년, 5년, 10년물 대상으로 실시.10년 이상 연물은 전일 금리 상승분 거의 회복 또는 더 많이 하락. 2년은 상승, 3년은 상승분 대비 하락 제한**
  - 추경 관련 발언이 연이어 나옴에 따라 금리 하락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 재정경제부 구윤철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집행 가능하다고 했지만 불확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증권